

10 오피니언

사설

학생들 알 권리 총족 위한 노력 병행돼야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회(총학)와 학사지원팀이 오는 3월 TF팀을 구성해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환산식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를 지적한 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은 지 약 반년만이다.

학부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한 GPA(평균평점) 백분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학교별로 GPA 백분위를 도출하는 환산방식이 상이한 가운데, 우리학교의 GPA 백분위는 주요 대학보다 1점 이상 낮았다. 이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타 학교 학생들과의 로스쿨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최근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 대신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희망하며

로스쿨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 적성시험인 LEET 응시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 가운데 작년 22학년도 LEET에는 역대 최다인 1만 2622명이 몰렸다. 과도한 취업 시장 경쟁에 이어 로스쿨 입시마저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GPA 환산식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하며 개선 조치를 요구해왔다. 타 학교보다 유리하지는 않아도 경쟁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때문에 최근 종학과 대학 본부에서 GPA 환산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다. 올해 말 입시를 치르게 될 로스쿨 지망 학생들이 개선된 환산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우리신문의 보도 이후 당시 KHU:KEY 서울캠 종학은 “교무처와 종학회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시급히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1월 현 KHU Play 종학이 취임하고 나서야 급물살을 탔다. GPA 환산식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학 본부도 개선 여론이 끊어진 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조정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반년 가까이 환산식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답답함과 불안함을 호소했다. 실질적인 개정안을 도출

한 것은 긍정적이나 빠르게 학생들의 불안감을 달랬어야 할 학교와 학생회가 정작 침묵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학점제도 개선 등 교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 과정은 필수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신중함’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GPA 환산법처럼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경우 최소한 일지라도 논의 여부를 공개하는 등 학생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학교는 교내 공간부족 문제 등 다양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GPA 환산식 논의 과정을 계기로 학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과 함께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길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기숙사 선발 방식 변화 필요성

공정과 불리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기숙사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왕왕 들어왔던 일이지만, 직접 취재를 하며 깊이 들여다볼수록 기준 선발체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다음 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숙사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학교가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입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내놓더라도 불리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과 불리함 사이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정된 공급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의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를 갖춰 불리함을 느끼는 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공정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기숙사 선발 방식과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 학교와 학생 간의 합의와 이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 좀 더 나은 방향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친환경 가면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생수 페트병 라벨 제거’로 시작된 플라스틱 감축은 플라스틱 퇴출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에코 매장’을 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전국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에코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친환경 소비의 열풍은 MZ 세대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Z 세대는 자신의 소비를 통해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며 가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친환경 가치 실천은 제로 웨이스트 트렌드로 이어졌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MZ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제품 이용 등의 방법을 실천하며 일명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챌린지는 ‘인증’에 목표를 두며 변질됐다. 참여자들이 친환경적인 소비자로 보이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 이에 실제 친환경보다 ‘인증’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 행세를 하는, 이를 바 ‘위장환경주의’가 등장하게 됐다.

기업의 위장환경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은폐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 과정만을 부각하기도 했다. ‘재활용 가능’ 라벨이 붙은 상품이 실제 0.1%만 재활용된다면, 과연 이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 그러나 친환경 마크의 내용이 진정으로 친환경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환경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없다. 필요 이상의 다회용품을 구매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는 당장 보이는 것 뒤로 숨겨지거나 망각된 본질에 주목할 때가 됐다.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려던 가치 소비의 초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